

남원농기센터-남원교육지원청
청년농업인 양성 MOU 체결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희중)에서는 남원교육지원청(교육감 김태수)과 상호협력 및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5일에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학교-대학원 및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남원 4-H 활성화, 초·중·고교 청렴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하여 농촌교육농장을 활용, 기초영농시설교류 및 농기계 실습교류 등 청년농업인 양성을 통해 농촌 지역 고령화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농업·농촌에 이해할 수 있도록 농업에 대한 이해와 마인드를 함양시키고, 학교-대학원의 교육을 혼합형 및 앞으로의 경쟁환경 변화에 대비한 반복된 내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농업기술센터(이희중 소장)은 “고령화된 농촌지역을 청년들이 살기좋고 농업을 통해 소득창출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여 살기좋고 건강한 남원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임실군, 내년도 지역살림 늘리기 총력

심민 군수, 위해 국회·중앙부처 방문 2018년 국가예산 적극 건의
첨진강로네상스 프로젝트 필요성 강조… 순환도로 개설 탄력 기대

심민 임실군수는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하여 행정력을 보이고 있다.

심 군수는 임실군의 미래 10년을 이끌어갈 대형사업 등의 조속한 추진과 한반도를 위한 2018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5월 이전 새벽부터 심 군수와 임실군 관계 공무원들은 일상과 함께 출발해 대형사업과의 조속한 이행과 2018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적극 건의하였다.

심 군수는 특히 2000억원 규모의 첨진강로네상스 프로젝트 사업의 조속한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면에서 그 해수인 첨진강로(독점호) 순환도로 개설에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함을 당위성을 제시했다.

심 군수는 “첨진강로가 만들어진 지

지역 국회의원인 이윤호·안호영 의원을 방문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지난 대선 당시 지역주민사업으로 전북도당 실행계획에 포함된 노령산마을 첨진강로네

국가가 책임져야 할 문제로 내년도에 실시설계비를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강조해 호소했다.

심 군수는 이어 “군대인 점에서 기는 임실군민의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큰 상황에서 첨진강로 순환도로와 같은 예산이 서린 숙원사업은 경제적 접근성이 아닌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30년간 고통받아온 소외된 국민들을 보듬고, 임실군과 같은 외소한

지역을 발전시키는 지역균형발전과 동반성장하는 차원의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심 군수는 또 이 자리에서 문제인 청원의 대선공약사업인 노령산마을 첨진강로네상스 사업의 일정으로 총 150억원이 책정되는 성수단 신립마을 험프리호텔 조성사업과 함께 노후화된 청원마을, 부동산 재테크 컨설팅, 우편 향토로 즐거운 여행과 함께 4개과정 강좌를 운영하게 된다.

13명의 수강 인원이 조기 모집 마감되어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기대를 가능

할 수 있었다.

이어 심 군수는 행정자체부를 방문해 상보관 행자부 차관과 교육네과 관계관 면담을 통해 임실군 노인종합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협력교부에 15억 원 지원을 요청했다.

심 군수는 “새로운 변화와 삶고장은 임실의 기반을 확고히 하고, 미래 발전을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지 하면서도 지역에 필요한 사업들이 추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협력사업 또한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 이를 위해 필요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전념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임실군은 2018년도 국가예산 기재부 산하 단계에 추가예산 확보 및 국비 증액에 힘력을 다하고 있으며, 지난주 6월 26일에도 심민 임실군수가 기재부 차관에게 임실노후관 및 청원마을, 부동산 재테크 컨설팅, 우편 향토로 즐거운 여행과 함께 4개과정 강좌를 운영하게 된다.

13명의 수강 인원이 조기 모집 마감되어 군민들의 뜨거운 열기와 기대를 가능

할 수 있었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첨진교교포는 8월 26일까지 출전회, 2018년도 이전 및 현장답습을 병행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재 이수화되고 있는 체계에 대해 체계화방지도사 과정을 구상하고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교상의 교수를 초빙하여 체계화방지 방법 및 대처 방안 등을 교육할 계획이다. 교육 후 마을간강당지도사·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게 되어 앞으로 체계 관련 분야에 40여명의 전문가를 양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 버스승강장 기초번호판 설치

임실군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안정적 접근을 위해 버스승강장 72개소에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기초번호판은 도로구간의 시작지점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일정한 길격으로 부여된 번호로 번호판은 설치 지점의 기초번호판을 표기한다.

군은 84개면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달 26일 작업을 마무리했다.

앞으로 위치 찾기 편의증진은 물론 주변 건물이 없는 도로변에서 등급상황 발생 시 위치판에 근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편리한 도로명주소 사용과 빠른 경색을 위해 보행자용 도로명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은 5일 문화체육센터에서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한 가운데 이완주 시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남원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성료

이주여성 등 600여명 참석
축하공연 등 부대행사 다채

남원시는 8일 문화체육센터에서 2017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남원시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경숙) 주관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이왕주 시장을 비롯한 각급 기관·사회단체장, 시민단체장, 이주여성 등 600여명이 참석했으며,

축하공연과 양성평등 유공자 표창, 감학금 전달, 양성평등 평포먼스, 특강과 힘마을 화합행사 등의 본행사와 여성축제 예방 행태인 여성단체 활동 전시 등 부대행사를 다채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여성단체회원들 위주로 진행되던 행사를 남성과 여성이 함께 참여하고, 각 회원단체들의 뜻을 모아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경제 금을 전달하는 등 행사를 좀 더 의미 있게 진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였으며, ‘희망의 심장’이라는 주제로 특강과 같은 전시에 능동농조합법인 대표는 여성들에게 도전의식과 꿈을 갖힐 것을 제안하고 강의에 많은 관심을 얻어냈다.

이왕주 시장은 기념사에서 “법과 제도만으로는 진정한 양성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모두 한마음 행동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한걸음 더邁進을 나가자”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김태홍 스포츠 아크데미

<http://www.kimslsports.com>

CEO 김태홍

서바이벌
ATV / 미기카
래프팅 / 카약
스키 / 보드
펜션 / 이벤트

Phone. 063-323-8000~1

Fax. 063-323-8000~1

Mobile. 010-3680-2973

E-mail. skiljump77@hanmail.net

A. 전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금로 312(충포 485-2)

대표 약력

김태홍 소개 및 첨보신수집동

전국 선수권 대회금메달

국제대회 디수 점기 및 우승

동계대회 국기대회 출전

국기대표 코치 역임

일본 선수로 국제대회 참가

오스트리아 국립스노우파크 참가

온로리지 와와 채리온 참가

리프팅 캐리어 채리온 참가

수상 인생구축으로 자랑을 참되

한국대표팀 수료증 이민기자 대표

오스트리아 국립스노우파크 INSL UNSL 대표

남원시 사회적 경제 ‘새활력’

지리산구절초·황치마을 등 행자부 공모사업 선정

남원시가 행정자체부의 2017년 마을기업육성 공모사업에 신규 마을기업으로 지리산구절초(영), 2년차 마을기업으로 황치마을(영)을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냈다.

이번 지원받은 지리산구절초(영) 조합은 산부인 충기마을의 구절초 식재지 확장과 허브장을 개발·판매, 흥차마을은 고령자 품앗기 판매가 주요 사업 내용이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의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 등 지역 공동체 이익을 실현하는 사업으로, 기계경비 구입, 제품 포장박스·시제품 개발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지리산구절초(영)과 황치마을은 보내는 물품이고 전국적으로 판매량을 확대하고 수익금의 10% 이상을 지역 봉사

와 어르신들을 위한 기부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또한 풀뿌리 지역경제 성장을 이끌어 갈 사회적기업 육성에도 신임을 기울인 바 있다. 2017년 상반기

에 4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신규 지원받았고, 하반기에도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예비 지원에 대한 임명장을 향상화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의 자생적 강화와 안정적인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 및 사업개발비·사회보람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총 7개의 마을기업과 12개의 사회적기업 상생 플랫폼 구축을 위한 간담회 등, 사회적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남원=유영철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